

동해 바이오매스 3만kW 발전소 건설

동서발전이 동해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한다.

동서발전은 삼성동 본사에서 포스코건설과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9일 발표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단일 발전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3만kW로 201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전력 생산만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국내에 지어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로는 국내 최초로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발전소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린에너지 상용화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2/09>